

K-조선 대약진

자율운항 등 10대 플래그십 기술개발... 10년간 2兆 투자

산업부 '초격차 비전 2040'
LNG선 이을 新성장동력 육성
조선 공정 무인화율 50% 목표
"세계 1위 굳건히 지켜나갈 것"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일 부산 강서구 파나시아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K-조선 Tech 얼라이언스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조선업계가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개발, 조선 공정 무인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선업 초격차 기술개발을 위해 민관이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강경성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 파나시아에서 '2차 K-조선 기술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의 중장기 기술개발 청사진을 담은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산업부가 지난 6개월간 조선 3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과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우선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선박 기술 포트폴리오 완성을 목표로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추진 기술

및 친환경 혁신 기자재와 원유·가스 등 전통 해양플랜트를 넘어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연료 생산 플랜트 기술 등을 개발한다. 또 LNG(액화천연가스)선 이후의 우리 먹거리를 책임질 액화수소 운반선 화물창, 대형 전기추진선박 등 원천기술 확보와 해상 실증 등 상용화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공정 무인화율 50%를 목표로 설계-생산-야드 운영 등 전 공정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한다. 특히, 고위험·고

난도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용접·도장 자동화 기술과 협동 로봇 기술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자동화 선박 블록 공장 기반 기술을 확보해, 시험 공장(Test Bed)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를 위해 무인 항해에 필요한 센서, 기자재, 통합 운영 시스템 등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또 승조원의 업무를 휴먼-로봇이 보조할 수 있는 기술과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 확보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아울러 이같은 초격차 기술개발을 통해 2040년 K-조선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민관이 원팀으로 향후 10년간 최소 2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선박용 탄소포집시스템, 자율운항선박 플랫폼, 무인 자율제조 공정 등 10개 프로젝트는 향후 혁신·도전형 기술개발,

실증(트랙레코드 확보), 표준화까지 지원해 LNG선을 이을 우리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한편, 정부와 조선 3사는 생산공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용접 협동로봇 ▲가상현실(VR) 활용한 근로자 용접·도장 교육 시스템 ▲외국인 근로자 현장 작업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챗봇 ▲조선사-협력사와 생산 협업 플랫폼 개발 등 4가지 현장 대응형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대응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강경성 1차관은 "민관이 함께 비전 2040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간다면 2040년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와 금년 상반기 기준 역대 2위 수출액을 기록한 만큼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 애로 해소, 선제적 규제 완화 등에 총력 지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조선3사, 친환경 순풍에 쾌속질주... 상반기 수주 '잭팟'

HD한국조선해양
연간 수주 목표액 91% 달성
삼성중 LNG선 등 22척 수주
한화오션 작년 수주총액 돌파

국내 조선 3사가 친환경 선박 바람을 타고 올해 상반기 대규모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HD한국조선해양은 반년 만에 연간 수주 목표액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수주 목표액의 50%를 넘겼으며 친환경 고부가 선박을 중심으로 전략을 이끌어 가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

이고 있다. 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8척, PC선 52척, LPG·암모니아 운반선 36척 등 올해 총 116척(해양 1기 포함), 123억 5000만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135억달러의 91.5%에 해당하는 수치다.

선종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8척, PC선 52척, 액화석유가스(LPG)·암모니아운반선 36척, 에탄운반선 1척,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6척, 탱커 3척, 자동차운반선(PCT

C) 2척,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FSRU) 1척, 해양설비 1기, 특수선 4척 등이다.

삼성중공업도 지난 1일 중동지역 선주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4척(계약 규모 1조 4000억원)을 수주하며 실적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 선박은 2028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2척, 49억달러를 수주했다. 올해 수주목표(97억달러)의 51%를 달성했다. 수주한 선박은 LNG운반선 19척,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2척, 서틀탱

커 1척이다. 현재까지 수주잔고는 337억달러에 달한다.

별도로 수주 목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한화오션은 LNG운반선 16척, VLCC 7척, 초대형암모니아운반선(VLAC) 2척, 초대형LPG운반선(VLGC) 1척, 해양 1기 등 총 27척을 수주했다. 액수는 약 53억 3000만달러로, 6개월만에 지난해 수주총액 35억 2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조선업계가 이같은 수주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배경에는 글로벌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업계가 대응에 나선 것이 때문이다.

유럽연합(EU) 등 각국은 수출기업에 기후 위기를 명분으로 탄소 관련 공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 제품 생산 과정은 물론 협력사, 유통 과정 전체 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스코프3' 공시 제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EU가 2026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디지털제품여권(DPP)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수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선가 하락이 예상됐던 컨테이너선도 수에 즈음한 사태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 조선 3사의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과 맞물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소기업계, 베트남 총리 면담... '한국형 산업단지' 등 협력 논의 노조리스크 발목... '명분없는 파업' 비판 쇄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여
11월 '한·베 투자협력 포럼' 개최

중소기업계가 베트남에 네거티브 방식의 '한국형 산업단지' 시범 조성을 적극 검토한다.

11월엔 베트남에서 '한·베 투자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베트남 정부에 한국 기업은행의 베트남 법인 인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대표단이 지난 1일 저녁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을 방문한 판 민 쩌(P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를 만나 양국 중소기업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왼쪽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판 민 쩌 베트남 총리,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지난 1일 저녁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날 한국측에선 김 회장 외에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남 노바사이지 회장이 참석했다.

베트남측에선 판 민 쩌 총리 외에 응우

엔 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응우엔 흥 지엔 산업무역부 장관, 판 판 하 중 앙은행 부총재, 응우엔 민 부 외교부 1차관, 부 호 주한베트남 대사가 함께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대표단은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여 년 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함께 육성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베트남 주재원 비자 발급 애로 해소 ▲여름철 전력 공급 불안정 해소방안 마련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간소화 등 베트남 진출 한국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를 전달하는 동시에 베트남 현지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1면 '신사업 속도내는 JY'서 계속

이 회장은 최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앤디 제시 아마존 CEO 등을 만나 미래 사업 전략을 구체화했다.

◆전삼노 4일간 총파업 선언

전삼노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임금 무노동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삼노 측은 "사측은 어용 노사 협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2024년도 기본 임금 인상률 3.00%를 거부한 855명을 포함, 전 조합원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하라"며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의 불투명한 초과 이익 성과급(OPI)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회박되고 있는 반도체 사업에

노조 리스크가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삼노가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하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전삼노 조합원 대부분은 DS부문 직원들로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직원의 약 22% 규모인 2만 8397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와 삼성 내부에서는 전삼노의 파업을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원들이 그동안 회사의 사업 부진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과 소수 강경 조합원을 위한 명분 없는 총파업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총파업에 참여할 조합원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전삼노는 다음 주에도 5일간의 2차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